



별별신문
29호

| 발행 일자 | 2017년 5월 24일

| 발행 인 | 별별신문_용, 유나, 별, 달래, 차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별신문 29호에서는 **일수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매일 돈을 갚을 수 있어 언뜻 보면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일수 대출. 하지만.

'빛 돌려막기의 종착역'이 될 수도 있는 숨은 함정들이 있다는 사실! 일수 대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뒷면에서 계속)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 상담, 심리상담 02-953-6279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빛**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빛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폭행, 협박** 등을 당할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변호사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은 당연하구요!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



1. 일수를 쓰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10번 더 생각해보아요!

짧은 기간에 값은 일수는 대체로 불법 이자율을 요구하거든요. 27.9%이상의 이자라면 불법! 수수료나 선변제 요구도 불법이에요. 하루 이틀이라도 일수를 갚지 못하면? 연체와 돌려 막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2. 만약에 일수를 썼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본인이 받아두셔야 해요.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을 가져가는데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아는 건 기본!

3. 일수를 썼는데 며칠 갚지 못하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일수업자들은 가족에게 알린다는 말을 언니들이 무서워한다고 여겨 계속 협박을 해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겠지만 연락을 피하지 말고 쫓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명의도용이나 보증 문제로 모르는 사람의 연락이 갈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켜두고요. 믿을 만한 사람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독촉장, 우편물, 법원 발송물 등을 받도록 하구요.

4. 일수를 쓰고 돈을 모두 갚았다면?

값은 돈도 다시 보자! 확인증(채무완납증명서)을 꼭꼭 달라고 해서 챙겨두세요! 나중에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대여금 소송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4. 선불금에 일수에 빛이 늘어나 생활이 어렵고 빚독촉으로 힘들다면?

아래의 곳에 상담을 문의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협박, 원금과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일수업자의 명함과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룸 02-953-6279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서울시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국번없이 120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